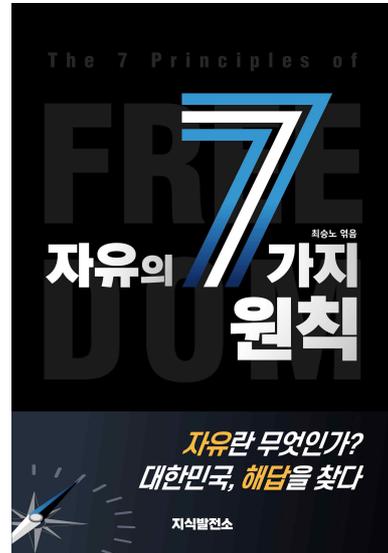


자유기업원	보도자료		www.cfe.org
보도일시	즉시	배포날짜	2022년 11월 23일 (수)
담당자	· 자유기업원 김주상 선임연구원 · 02) 3774-5003 · kjs@cfe.org		

[신간] 대통령이 35번 외친 자유! 그 해답을 찾다, '자유'의 7가지 원칙

대통령의 취임사에서 35번 등장한 '자유'는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. 그러나 그 '자유'가 무엇이며, 국가 간의 거래, 개인 간의 모임, 경제정책 등 삶의 곳곳에서 '자유'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는 쉽사리 알기 어렵다. 이런 '자유'의 의미를 상세히 알려주는 <자유'의 7가지 원칙>이 발간됐다.

책의 각 장은 △재산권 보호, △법치, △신뢰와 화폐 안정, △개방과 자유무역, △제한된 정부, △관용, △시장화 등 자유의 7가지 원칙을 설명한다. 첫째, '재산권의 보호'는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보장한다. 둘째, '법치'는 법 앞의 평등과 공정한 사회의 필수조건이다. 셋째, '신뢰와 화폐 안정'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신용 질서로 자리한다. 넷째, '개방과 자유무역'은 우리에게 더 넓고 열린 세상을 선사한다. 다섯째, '제한된 정부', 작은 정부를 통해 역동적인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. 여섯째, '관용'은 사회통합의 열쇠이다. 마지막으로 일곱째, '시장화'는 경제적 자유를 확산하는데 기여한다. 이 책은 자유가 무엇인지, 그리고 그 자유의 신념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여러 사례를 통해 제시한다.



한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은 '자유'의 증진이다. 역사 속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인류는 자유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. 우리가 인류의 나아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사회는 자유로운 세상으로 더욱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. 이 책은 그러한 실천을 돕기 위해 쓰여졌다. 독자들은 과학, 인문학, 경제, 역사, 사법, 문학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자유의 의미를 발견하고,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.

<자유 7가지 원칙>은 자유기업원이 펴냈고, 조성봉 숭실대 교수,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, 남정욱 작가, 임명묵 작가 등 총 42명이 집필하였다.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“자유 사회를 향한 여정에서 인류가 자유 7가지 원칙을 나침반으로 삼는다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을 강력 추천한다.

최승노 엮음, 지식발전소, 354쪽, 20,000원

자유기업원 개요

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. 이를 위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내외 칼럼 및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. 또한 오디오클럽이나 강좌와 같은 FreeTube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, <선택할 자유>를 포함하여 현재 총 79권의 자유주의 시리즈 도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.

웹사이트: <http://www.cfe.org>